

타지키스탄 경제성장: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정왕근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II. 타지키스탄 경제성장
 - 1. 독립이후~내전(1992~1997)
 - 2. 내전 종결 후~금융위기 전(1997~2007)
 - 3. 금융위기 이후
- III. 타지키스탄 경제성장 현황 및 문제점
 - 1. 산업구조
 - 2. 사회간접자본
- 3. 대외환경
- IV.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전략 및 경제협력현황
 - 1.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전략
 - 2. 타지키스탄과 중국과의 경제협력현황
- V.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경제협력 전망
- VI. 결론

초 록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관계는 아직 국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이 글은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과정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가능성을 전망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독립 후 내전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지체되었고, 또한 다른 중앙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해, 빈약한 에너지자원과 주변국과의 갈등과 문제로 인한 물류유통의 어려움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타지키스탄은 경제성장에 있어 세계기준 실시를 조건으로 내건, 국제기구의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것은 국내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저해하였다. 또한 불투명한 정책 및 시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이것은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 확대 및 빈곤층 증가, 대외부채 상환률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안정 및 개발과 미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타지키스탄에 접근한 중국은 타지키스탄의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고, 중국의 지속적인 투자는 단일화된 타지키스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 양국간의 노력이 상호간 장기적인 경제협력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 서론

타지키스탄의 역사는 중앙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타 민족의 침략과 외부지배 세력의 점거가 반복된 역사였다. 기원전 6세기에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길에 포함되어 있었고, 7세기와 8세기에는 투르크와 아랍인에 의해 차례로 점령당했다. 이러한 역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13세기는 몽골, 14세기는 티무르제국, 19세기까지는 우즈베크 칸에 의해 지배당했었다. 19세기 말부터 재정러시아의 식민지로 되어, 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하게 되었고, 1991년에는 소련의 붕괴에 의해 독립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타지키스탄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그들 스스로 국가를 이루고 제한된 영토에서 그들만의 민족이나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문화발전을 이루었던 시간은 지극히 짧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타지키스탄의 정체성은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었던 20세기 초·중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적 통합을 두려워한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분할 독립된 것이 현재의 근대국가로써 타지키스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상황은 독립 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전소비에트엘리트 간의 5년에 걸친 내전으로 국가성장을 막는 병폐로 작용했으며, 내전 이후에도 소비에트 시절의 보조금과 교환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경제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져 경제는 침체되어 갔다. 사면이 막혀있는 지정학적 불리함, 열악한 인프라구성, 빈약한 자원, 불투명한 시장으로 말미암아, 세금우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미비한 실적이고, 월드뱅크, IMF 등 국제기구의 개발원조는 한순간에 타지키스탄경제의 국제기준으로 탈바꿈을 요구해, 타지키스탄 국내기업발전의 성장을 저해하였고, 알루미늄과 면화를 위주로 한 단일화된 사업구조는 대량의 생필품을 외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무역불균형을 초래해, 타지키스탄의 경상적자를 계속해서 증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펴볼 때, 타지키스탄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2004년을 기점으로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놀랄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중국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수출입무역의 증가와 놀랄만한 원조 및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아래에서는 먼저, 2장에서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을 독립 후-내전, 내전종결 후-금융위기 전 그리고 금융위기 후로 살펴본 후, 3장에서는 현재의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현황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볼 것이다. 4장에서는 도대체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양국간의 경제협력현황을 수출입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분석해볼 것이다. 5장에서는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경제협력전망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지속될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II. 타지키스탄 경제성장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정치적 독립과 새로운 독립국가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들의 다툼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는 외관상 정치적 문제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에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소비에트 정부가 독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타지키스탄은 소련해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소비에트 공화국시절 가장 가난했었고, 경제적으로는 보조금과 교환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독립이후, 막대한 보조금은 중단됐고, 5년의 시간동안 내전을 겪었기 때문이다.

1. 독립이후-내전(1992~1997)

소련의 통제가 느슨해진 80년대 말, 지역적 이해관계로 힘의 경쟁이 시작되었고, 러시아가 아닌 본래의 타지문화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새로운 당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독립 후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는 정부측 군대와 이슬람과 민족주의자 연합과의 내전이 발발했다 (이 내전을 지역과 씨족간 전쟁이라고도 함). 소련의 지원중단과 내전으로 인해 고급기술자들의 해외 도피로 1992년 타지키스탄의 상황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추수를 하지 않아 면화가 부패되어 들판에 뒹굴었고, 국민들은 고질적 기아로 허덕였다. 알루미늄 생산은 구소비에트 연방 때 연간 52만 톤을 생산하였지만, 91년 37만 톤, 92년에는 20만 톤을 생산했으나 그나마도 그해 9월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것은 내전의 영향으로 생산 재개가 거의 불가능 할 정도로 부식되거나 파괴된 상태가 된 것이다. 이는 내전의 상처가 국가기간산업시설에까지 미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 뿐 아니라 1992년에는 석탄과 석유의 수입중단으로 전력생산이 절반으로 감소하여 수도 두산베에서조차 수도공급과 난방이 불가능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남동부 클리압지역의 2개 댐의 손상으로 관개가 불가능해졌고 러시아 기술자들은 떠났다. 이 내전으로 5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고, 산업생산의 빠른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로 경제의 불안정성을 나타냈고, 25만개의 거주지 파괴, 공장과 인프라 훼손으로 타지키스탄 GDP의 50%이상을 잃게 만들었다.¹

2. 내전 종결 후 ~금융위기 전(1997~2007)

친 러시아 정책으로 일관한 타지키스탄 정부는 98년 이후에도 국경지역에서 반군과 러시

¹ 이병호, 타지키스탄 내전과 경제상황, 중동연구 2009년 28권 2호

아 국경수비대의 교전으로 목격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99년 선거에 합의, 2000년 UN 감시하의 다당제 총선이 실시되어 내전은 수백 명으로 추정되는 반군의 존재를 뒤로한 채 실질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2003년 6월, 타지키스탄은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2006년 11월 6일에 에모말리 라흐모노프(Ernornali Sharipovich Rahrnonov, 1952~)가 7년 임기의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결국 국가의 안정이 서서히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타지키스탄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내전 후의 복구문제와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경제를 급속히 회복시킴으로써 국력을 향상시켜야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었다.²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은 내전이 진행되었던 91년부터 99년까지 마이너스 9%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 이전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넘었던 것이 2003년 170달러로 추락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내전 초기에 가장 극심했으며, 점차 나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전 기간 동안 생산활동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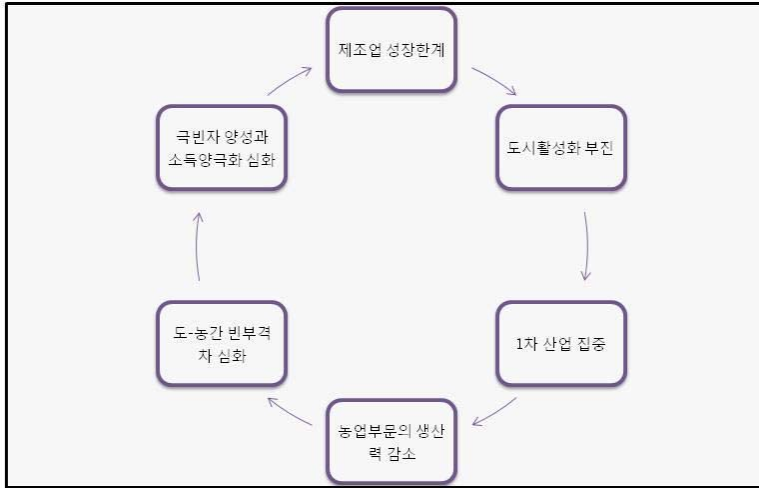
산업별 생산비율은 독립이전 1차산업 중심(38%)에서 현재 서비스 부문이 49%를 차지함으로써 표면상 선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하락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경작지 훼손에 따른 것이다. 결국 농업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서비스 부문 생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제조업 부문의 종사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내전으로 인하여 공장이 파괴되거나 러시아 기술자들의 이탈로 제조업 부문이 활성화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성장에 따라서 제조업종사 비율이 늘어나고 그들의 소득으로 인해 서비스업이 활성화를 가져오는 산업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공장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는 도시로 입성하지 못하고 농촌에 머물러 농업종사 비율은 증가했지만, 농업부문의 생산성은 도리어 크게 하락했다. 결국 제조업의 성장한계는 아래 그림1과 같은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³

또한 농업부문의 생산력 감소로 도·농간 빈부격차 및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대량의 노동자 이민이 발생했다. 노동자이민은 타지키스탄의 중요한 수출로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데 일조했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수출을 합한 정도였다. 타지키스탄의 노동자이민은 불법적, 계절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는데, 각종 자료에 따르면 2십만에서 8십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거의 백만에 가까운 타직인들이 매년 외국에 일을 하러 나가는데, 주로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이민한 타직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러시아에서 300달러/월이며, 이것은 타지키스탄에서 유사한 노동을 10번 한 것과 맞먹는 것이다. 각기 다른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노동자 송금액은 4억3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고, 이것은 타지키스탄 총예산수익의 20~ 50%를 의미한다.

2 정세진,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KIEP 전략지역 심층 연구 논문집1(2010)

3 이병호, 타지키스탄 내전과 경제상황, 중동연구 2009년 28권 2호. p.189.

그림 1. 타지키스탄 경제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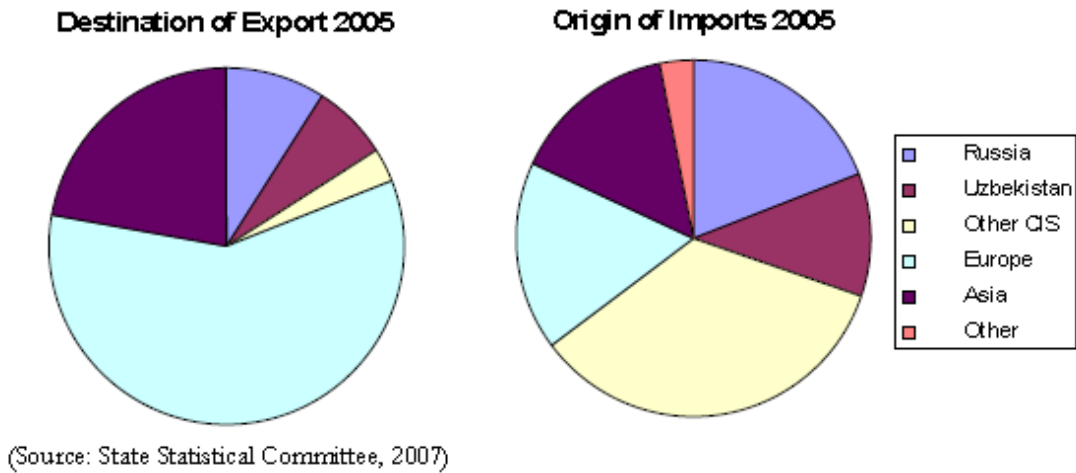
노동자송금은 타지키스탄의 민간 소비 및 투자를 증대시켰다. 이주자들은 돈이 아닌 상품 또한 가져왔는데, 이것은 국가총수입의 45~75%를 맞먹는 양이다. 94%의 송금액은 이주자 가족의 소비로 쓰이며, 이것은 빈곤률을 줄이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IMF와 세계 은행에 따르면, 노동자 이민은 타지키스탄을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노동자 이동은 타지키스탄은 타직 외부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⁴

타지키스탄의 교역 규모는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독립 후 계속 성장, 약 5배 정도 규모로 커졌다. 교역 대상국 역시 다변화 되었으나 아래 그림2을 보면 2005년도 수입은 러시아에 수출은 네델란드와 터키가 있는 유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는 타지키스탄의 경제 정책이 전후 독립 이전으로의 회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품이 알루미늄과 전력, 면화를 비롯한 농작물이고, 주요 수입품은 전력과 석유제품, 산화알루미늄, 기계류 등인 것이 설명해 주듯이 전통적으로 수력발전으로 얻어진 전기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을 제련하는 것이 주력 산업이다. 알루미늄 사업의 경제 기여도는 91년 8.5%에서 2003년 40%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력발전 개발은 관개 시설의 낙후와 투자유치 실패로 시설이 낙후되어 전력생산은 잠재생산능력의 33%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재 타지키스탄은 연간 5억 KWh 정도의 전력을 수입해야하는 전력 순수입국이 되었다.⁵

⁴ Gabriel Brunegård(2007), The Development of Tajikistan's Trade and Industry, Umeå University, Sweden Department of Social and Economic Geography. pp.22-23.

⁵ 심현정,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 사업, 해외경제정부 국별조사실 동북아팀(2008)

[그림 2] 타지키스탄 2005년도 수출입무역 국가별 비중



3. 금융위기 이후

2008년, 타지키스탄의 경제상황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2월에 심각한 폭설에 의해 타지키스탄 정부는 거주민의 전기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150개 기업의 생산을 중단시켜 공업 손실이 심각해, 2008년도 폭설에 의해 타지키스탄은 최소 10억달러의 경제손실을 보았고, 에너지 문제는 다시금 타지키스탄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다. 에너지 긴장완화를 위해, 정부는 일련의 긴급조치를 채택했는데, 그것은 전력소비제한제, 통일된 에너지공급가격실시가 포함되었고, 에너지절약, 대외에너지공급증가, 에너지항목 투자증가 등을 주장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타지키스탄의 하반기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타지키스탄은 금융시스템은 국제기준 달성 기준이 낮아, 직접적인 금융위기의 충격은 적었지만, 사실상 타지키스탄 경제는 글로벌금융위기의 충격과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금융위기로 타지키스탄의 공업전기가 등을 높이는 조처에 영향을 주어, 2008년도 타지키스탄의 외국투자률이 하락하였다.⁶ 다른 한편으로는, 타지키스탄은 국외 노동이민자의 소득이 타지키스탄 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월드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의 국외송금액이 국내 GDP의 36%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역사적 전통과 국내경제상황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노동이민자는 러시아에서 일을 했지만, 2008년 하반기, 러시아 금융위기로 러시아가 노동이민자에게 제공했던 일자리가 대폭 하락하여, 이것은 러시아에서 일했던 수만 명의 타지키스탄 노동자를 국내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타지키스탄공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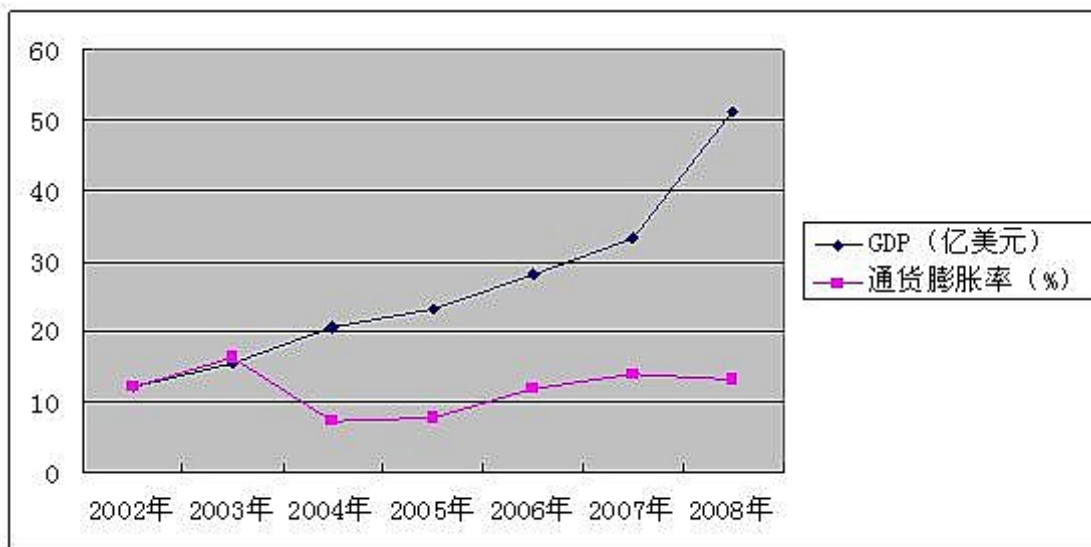
⁶ 杨进, 塔吉克斯坦的现状与发展趋势, 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9年7月版

타지키스탄의 이민노동자의 송금액이 2007년보다 배로 줄었다고 나타났고, 2009년 1월 이민노동자의 송금액은 22%나 하락하였다.

빈곤문제는 타지키스탄 국내 정치안정과 사회발전에 계속해서 중대한 문제로 남았다. 근래에, 특히, 2008년도 이래, 타지키스탄의 빈곤인구는 심각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타지키스탄 빈곤층인구의 평가기준은 월생활비가 40.5달러 이하에 두고, 극빈층 평가기준은 월생활비가 25.9달러 이하에 두었다. 타지키스탄 통계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 타지키스탄의 전체 빈곤인구는 총인구의 53%를 차지하였고, 극빈층은 총인구에 17% 차지했다. 빈곤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타지키스탄 정부가 사회복지부문에 더욱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가 경제영역에 투자할 여지를 줄여,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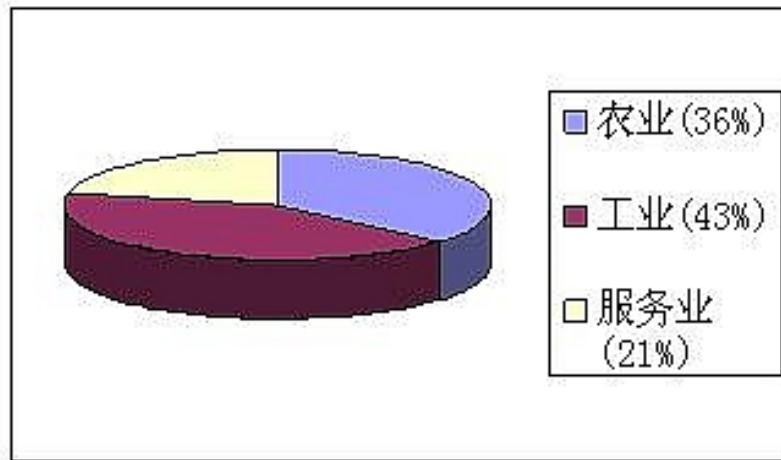
물가상승률의 상승은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의 장애물 중 하나이다. 2006년도부터 물가상승률은 10%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13.1%에 달했다. 이런 고인플레이션은 주민 실질임금 증가를 소급시키는 것이다. (아래 표1 참조)

[표 1] 타지키스탄 GDP와 물가상승률 (자료출처: 타지키스탄 통계위원회)



역사와 자연적인 이유로, 타지키스탄의 경제구조 단일화 및 심각한 불균형성 같은 이러한 요인은 타지키스탄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제약하였다. 타지키스탄의 공업기초는 비교적 좋지만, 중공업에 편중되어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경공업은 발전되어 있지 않았고, 많은 생활용품을 장기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프라 또한 비교적 양호하지만, 자본과 기술지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경제작물 위주의 농업생산은 일부 양식관련 생산품을 대부분 수입해 먹는 실정이다. 서비스업은 타지키스탄의 경제현대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타지키스탄 GDP의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그림3 참조)

[그림 3] 타지키스탄 생산구조(2008)



자료출처: 타지키스탄 통계위원회

타지키스탄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 타지키스탄 GDP총액은 51.33억 달러이고 2007년과 비교해 7.9% 증가했다. 그중, 공업생산액은17.22억 달러이고, 2007년과 비교해 9.1% 증가했다. 일부 공업생산은 2007년과 비교해 감소했는데, 주요원인은 에너지공급부족이 공장가동을 어렵게 만들어 생산을 정지한데 있다. 농업총생산액은 16.05억 달러이고, 2007년보다 19.8% 증가했다. 화물운송량은 4737만톤으로 2007년보다 11.1%증가했고, 발전량은 161.27억 kWh로 2007년보다 9.2% 증가했다. 2008년 한해 인프라투자는 7.45억 달러로, 2007년보다 12.9% 증가했는데, 그 중 1/2의 자본은 에너지항목에 투자되었는데, 주로 수력 발전소 건설에 투자되었다. (아래 표2 참고)

[표 2] 타지키스탄 주요경제지표통계

년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亿美元)	15.5	20.7	23.1	28.1	33.3	51.3
국민평균GDP (美元)	234	306	334	401	468	697
실질GDP성장률 (%)	10.2	10.6	6.7	7.0	7.0	7.9
물가상승률 (%)	16.3	7.1	7.8	11.9	14.0	13.1
상품수출 (亿美元)	9.1	11.0	11.1	15.1	17.7	14.1
상품수출 (亿美元)	10.3	12.3	14.3	19.5	23.4	32.7
경상계좌잔액(亿美元)	-0.1	-0.6	-0.2	-0.2	-1.0	-
국제저축 (亿美元)	1.2	1.7	1.9	2.0	3.0	2.201

외채총액 (亿美元)	11.5	9.1	10.2	8.8	13.1	13.71
외채상환률 (%)	7.1	6.6	4.5	8.3	2.3	-
환율 (달러/소로니)	3.06	2.97	3.12	3.30	3.48	3.43

자료출처: 타지키스탄 통계위원회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타지키스탄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수력에너지 투자를 증대하는 것, 중소기업의 감독제도를 완화하는 것, 중소기업 대출확대, 농업투자증대, 각종 경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과 사회보장 항목의 투자 증대, 최저임금액 상승,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을 포함한다.

Ⅲ. 타지키스탄 경제성장 현황 및 문제점

타지키스탄은 매년 빠른 경제성장으로 내전의 후유증을 치료해 가고 있지만, 금융위기의 여파로 타지키스탄은 단일한 산업구조, 에너지공급의 어려움, 빈부격차와 FDI의 감소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정학적인 환경 및 인프라의 낙후로 주변국가와의 원활한 경제교류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산업구조

고전적 거시 경제학은 원론적으로 국가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부흥에 의한 1차산업 인구의 제조업으로의 이탈, 도시 인구의 증가, 그리고 서비스 산업 인구의 증가에 의해 산업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시각에서 보면 타지키스탄의 산업구조는 2000년 산업별 종사 인구로 볼 때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67.2%) 제조업의 비활성화(7.5%)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⁷ 하지만, 서비스업이 타지키스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1%나 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각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타지키스탄의 산업은 면화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알루미늄 공장과 수자원개발로 압축할 수 있다. 농업에서의 임금은 비농업인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면화생산에서 볼 때, 소비에트 시절, 타지키스탄은 면화경작의 집중으로 인해 수은중독으로 토지와 수질이 오염되는 환경적 재앙을 받았고, 내전이 진행되면서, 수자원 시스템을 관리하지 못해,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⁷ 이병호, 타지키스탄 내전과 경제상황, 중동연구 2009년 28권 2호. p. 193

총수출에서 면화비중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투자부족과 집단농장구조의 경쟁시스템의 부재 또한 원인이 되고 있고, 2007년에는 면화부문의 비중은 타지키스탄 GDP의 5%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경제작물 위주의 농업구조는 대부분의 양식을 수입해 먹는 실정이다.

타지키스탄 타다즈(Tadaz)에는 세계적 규모의 알루미늄공장이 가동 중인데, 이것은 소비에트 시기 지어졌다. 이 알루미늄 공장은 타지키스탄 수출순이익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의 인상으로 그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의 부족으로, 공장은 80%만 가동 중에 있다.⁸ 이런 이유로 타지키스탄 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해 댐의 추가건설을 통해 알루미늄 생산을 확대추구를 통해 산업구조를 다변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에 있는 알루미늄과 전력 역시 에너지와 광물로써 중동의 산유국들처럼, 전체적인 타지키스탄 경제성장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원자재 가격변화에 자국경제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경공업건설의 경시로 생필품을 대량 수입해 오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어, 빈부격차 및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사회간접자본

현재 타지키스탄의 교통망은 험준한 산악의 영향으로 철도보다는 도로 중심이며 정책적으로 도로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관개시설은 낙후되어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산업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그들을 지원하고 지식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시설은 소비에트 연방시절의 수준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타지키스탄은 순 채무국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예산집행은 쉽지 않다. 현재 타지키스탄은 월드뱅크, IMF, UNDP 등 개발원조형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위의 표2를 살펴보면, 2003~2008년까지의 채무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상환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준의 경제제도의 강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 순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도·소매 상권과 유통을 사유화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자본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공업이나 국책산업,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유틸리티 산업을 조급하게 민영화시켜 정치권과 결탁한 엘리트를 양산하여 부의 분배의 왜곡을 초래한 것이다. 현재 타지키스탄은 세계화에 맞춰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급한 민영화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것은 현재 타지키스탄의 경제

⁸ Gabriel Brunegård(2007), The Development of Tajikistan's Trade and Industry, Umeå University, Sweden Department of Social and Economic Geography. p.21.

성장만큼 일자리 창출을 하지못해 많은 노동이민자가 발생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최빈국으로써, 석유와 가스같은 자원 또한 거의 전무해, 사회인프라 및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원조와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들이 수 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선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와 시장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장경제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하기에 정부주도의 국내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3. 대외환경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군은 아프카니스탄을 치기 위해 타지키스탄의 공항의 주둔을 허가받았는데, 이것은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의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고, 현재 미국은 타지키스탄의 많은 양의 개발원조를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타지키스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경계하는 러시아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2004년 러시아의 두 개의 대기업인 러시아 알루미늄과 물전력회사는 타지키스탄의 총GDP와 맞먹는 20억달러의 투자를 발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소비에트연방들의 색깔혁명에 대한 불안감이 타지키스탄 엘리트들에게 미국의 저의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바로 친러시아적 감정을 표하게 만들었다. 또한 타지키스탄 정부는 타지키스탄의 육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넓은 지역적 접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의 이름 아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 협력을 촉진하는 접촉을 시작하였다. 타지키스탄은 2006년에 러시아, 벨로루스, 카자흐스탄과의 자유무역의 형성되었지만, 서로 지정학적으로 인접해있지 않아, 현재 이 공동체는 타지키스탄에게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⁹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락은 타지키스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알루미늄산업의 수입을 대폭 하락하게 만들었고, 수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FDI와 개발원조 또한 감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더 많은 수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더 큰 문제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불화에 있다. 과거 소비에트 정부는 양국의 자원 협력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어 봄과 여름에 눈이 녹으면 타지키스탄은 수력발전을 통해 주변국으로 전기를 수출하고, 댐에 물을 방류하여 우즈베키스탄이 그 물로 면화를 재배하도록 하였고, 겨울이 되어 수량이 줄어들면 수력발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은 전기를 타지키스탄으로 수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독립 후, 타지키스탄은 자국의 동절기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동절기의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전기를 2012년까지 매년 동절기마다 타지키스탄에 12억kw 전기를 공급하는데 합의하였지만, 문제는 전기공급이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온다

⁹ Gabriel Brunegård(2007), The Development of Tajikistan's Trade and Industry, Umeå University, Sweden Department of Social and Economic Geography. p.31.

는 것이다¹⁰. 그것은 우즈베키스탄에 1kw당 0.3센트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타지키스탄의 경제악화와 타지키스탄의 지속적인 댐 건설로 우즈베키스탄의 매해 동절기에 물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 지면서 2009년 1월 전기선을 끊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타지키스탄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댐을 쌓으면 쌓는 만큼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해당국에 발전기를 돌리도록 요구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앞으로 타지키스탄의 전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댐건설은 양국간의 관계가 자칫 국가간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¹¹.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지키스탄의 대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원활한 교통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런 양국간의 관계로 소비에트 시절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교통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IV.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전략 및 경제협력현황

산업구조의 단일화,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에 의한 인프라 미비, 줄어드는 개발원조와 더 까다로운 조건들, 불투명한 시장환경과 글로벌 위기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 등등 타지키스탄은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놀랄만큼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중국이 왜 타지키스탄에 많은 경제원조 및 교류를 하게 되었는지,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먼저 분석해보고, 구체적인 타지키스탄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수출입무역과 직접투자를 통해 살펴볼도록 하겠다.

1.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전략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가입에 성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대륙의 세력 판도는 중앙아시아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언명함으로써 이 지역이 열강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지역인가를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할이 부각되는 요인은 첫째,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앙에 위치함으로 인해 안보적 차원에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갖는다. 둘째,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들의 동향과 선택은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 균형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셋째,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넷째,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라

¹⁰ 张宁, 乌兹别克斯坦和塔吉克斯坦之间的水资源矛盾, : 《俄罗斯中亚东欧市场》2009年第11期

¹¹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042808.shtml>(검색일. 2010. 12. 14)

는 것이다. 광대한 교통·통신망이 교차하며 이란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서는 인도양으로, 중국을 통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은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다.¹² 이런 중앙아시아의 매력 속에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핵심적 목표는 서부국경의 안정과 경제개발, 안보적 딜레마 해소 그리고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면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타지키스탄의 빈약한 에너지자원을 제외하고 본다면 중국서부국경의 안정과 경제개발, 안보적 딜레마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1) 서부국경의 안정과 경제개발

서부지역에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과제와 목표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신장-위구르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을 차단하고 서부영토를 보전함으로써 단일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함께 서부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을 단일국가 유지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서부국경을 안정시키려는 중국정부에게 3,700km에 이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접한 국경은 예민한 지역일 수밖에 없다. 서부국경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에 존재하는 범 투르크 민족주의 단체 또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이 신장-위구르 독립 움직임을 부추기고 저항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정부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에 근거를 둔 범 투르크주의 이슬람 세력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났던 동 투르크스탄 독립운동을 배후에서 지원했고,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을 중점관리국가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다자주의(多者主意)에 입각하여 신생국들과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서부국경을 안정시키고자 했다¹³.

대부분 세속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신생국들 역시 정권 안보차원에서 반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공동 전선을 중국, 러시아 등과 구축하고자 호응했다. 이것은 중국을 주도로 중앙아시아 국경을 둘러싼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중국과 접경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 정상들이 1996년 4월 상하이에서 회합을 갖고 국경문제 해결과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하여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강화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것은 ‘상하이 5개국 포럼’의 창설로 연결 되었다. 2000년 7월에는 5개국 체제의 구속력을 강화했고, 2001년 6월에는 우즈베크이 가세한 상하이 협력기구(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중국은

¹² 박상남,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4호, p.3.

¹³ 박병인,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전망:정책제언, 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2(2010)

미국이 속하지 않은 지역안보협력체인 SCO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와 영향력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동시에 신장-위구르지역의 분리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공동전선 구축을 끈고히 하여 서부지역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이다¹⁴.

서부지역의 불안을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은 경제적 측면으로 바로 중국 내부의 심화되는 지역적 편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의 경제개발 성과는 중국 동부해안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으나, 반면에 상대적으로 발전에 소외된 내륙과 서부지역 주민들의 괴리감과 불만은 중앙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욕구로까지 발전했다. 따라서 국가붕괴의 요인으로 부상한 동부 해안지역과 내륙·서부지역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중국정부는 90년대 말부터 내륙, 서부지역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방안 중에 하나가 동부에서의 경험처럼 가장 빈곤하고 낙후된 서부지역을 개방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안을 접한 동부와는 달리 내륙지역인 서부지역의 개방을 통한 개발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광대한 교통·통신망이 교차하며 이란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서는 인도양으로, 중국을 통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조건을 지녔기 때문이다. 서부지역은 중앙아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외부와 연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개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중국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의 일부 구간을 거쳐 로테르담까지 연결되는 新유라시아대륙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타지키스탄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하이협력기구의 개발원조를 통해 타지키스탄과 중국 신장변경을 잇는 터널공사를 2009년에 시작하게 되었다.¹⁵

2) 안보적 딜레마

서부지역에서 중국이 당면한 두 번째 과제와 목표는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으로 대두된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문제다. 9.11 이후 미국의 등장과 더불어 형성된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정치지형은 중국정부를 커다란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과 중앙아시아 진출은 역설적으로 서부국경에서 분리주의와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던 중국을 도와 서부국경을 안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민감한 군사시설이 있는 신장지역이 미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감으로써 중국은 자국영

14 김옥준·김관옥,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중국 국가안보전략에서의 함의, 중국연구43권

15 拉希德·阿利莫夫, <塔中关系: 历史, 现状, 发展潜力>, 俄罗斯中亚东欧研究 2010年 第2期

토의 후면에서 안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 이후 서부지역에서 조성된 이와 같은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중·단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를 수립해야만 했다. 1990년대에 급속하게 진행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등 주로 국내 문제에 몰두해 있던 중국정부는 전통적으로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기다리고 지켜보는 소극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심화 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또한 커졌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는 격상된 대외적 위상에 상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중국정부의 대외정책을 요구하였다. 중국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미군의 장기주둔이 명확해지자 전례 없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군사 협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에게 중앙아시아는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군사 작전을 지지하는 보루이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해 있어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많은 개발원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황은 중국에게 있어 타지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 타지키스탄과 중국과의 경제협력현황

1) 타지키스탄과 중국과의 수출입 무역 특징

1992년 1월 4일,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수교 후, 2009년까지 양국간 무역액은 급속히 증가했다. 수교 초기, 타지키스탄의 내전의 원인으로 양국간의 무역액은 미미해, 93년의 890만 달러에서 2003년까지 겨우 3,880만 달러였지만, 2004년부터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6,880만 달러, 2005년에는 1,578억 달러, 2006년에는 3,237억 달러, 2007년에는 5,240억 달러, 2008년의 타-중 무역액은 10억 달러를 넘어, 16,798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아래에서도 무역액은 7.4% 증가해, 10,5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것은, 16년동안 타-중 무역액이 11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무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교류가 활발한 카자흐스탄도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국과의 무역증가액은 3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특히,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는 서부개발의 견인차 역할로, 타-중 변경지역인 쿠레마이와 카라수항구에서는 2007~2008년 동안 양자무역의 60%가 이루어졌다.¹⁷

아래 표2를 통해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수출입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¹⁶ 保健云, [中亚五国的经济增长, 国际贸易发展及与中国的经贸合作前景分析], 俄罗斯中亚东欧市场(2009年 第6期)

¹⁷ 杨进, 塔吉克斯坦的现状与发展趋势, 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9年7月版

것은 알루미늄과 면화같은 야금속과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이 타지키스탄에 수출하는 주요물품들을 살펴보면, 생필품과 인프라와 관련된 물자들을 수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수출입무역총액을 살펴보면 심각한 불균형을 볼 수 있는데, 위의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무역액의 급증면에서 살펴보면, 양국간에 심각한 무역불균형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표 2] 2005년 중국과 타지키스탄 수출입상품구조

(단위: 만달러)

	대외무역총액	중국수입		중국수출	
		주요물자	금액	주요물자	금액
타지키스탄	15,794	야금속 및 농산물	1,420	기계와 통신장비, 교통도구, 건설자재, 생필품, 의복과 방직품, 주방자기	14,374

资料来源: 根据中国商务部驻哈萨克斯坦、吉尔吉斯斯坦、塔吉克斯坦、土库曼斯坦、乌兹别克斯坦等国经济商务参赞处 (<http://kg.mofcom.gov.cn/index.shtml>, 2007年10月6日访问) 网站数据整理。

2) 중국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

아래의 표3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2007년부터 타지키스탄의 직접투자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중국의 투자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4는 직접투자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간단히 말하면, 사업을 하러 타지키스탄을 와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를 살펴보면 키르기스스탄보다 직접투자량은 많았지만, 유지량은 그에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아직까지 타지키스탄의 불투명한 법적제도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부족함을 알 수 있다.

¹⁸ 保健云, [中国与中亚五国进出口贸易特点及存在的问题分析], 国际贸易问题, 2008.7

[표 3] 2003~2007년 중국의 중앙아시아국가의 직접투자현황표

(단위: 만 달러)

年份	中亚五国	哈萨克斯坦	吉尔吉斯	塔吉克	乌兹别克	土库曼
2003	4409	1971	1579	512	327	20
2004	7001	2478	1926	2154	423	20
2005	32527	24524	4506	2279	1198	20
2006	44641	27624	12476	3028	1497	16
2007	88091	60993	13975	9899	3082	142
2007 年末比重	100%	69.24%	15.86%	11.24%	3.49%	0.16%

资料来源:2007 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公报, www.fdi.gov.cn, 2009-02-27。

注:2003 年-2006 年末数据为中国对中亚国家非金融类对外投资存量数据。

중국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직접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근래, 중-타 경제기술협력이 점차 심화되어, 양자간 전신주건설, 도로교통, 전신 등의 영역에서의 협력이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고, 일련의 대형합자사항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성원국에게 9억 달러의 우대차관을 제공해, 중국 신강의 변경지역인 아수리(OksuR) 타지키스탄의 두산베를 연결하는 터널공사 및 500kv의 남북전기공급항목을 2009년에 실시하였고, 중국은 타지키스탄의 원조를 활용하여 샤얼-샤얼 터널 항목은 2006년에 공사를 시작했고, 9억 달러 상당의 220kv의 전기공급 또한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2008년 6월에 완공하였다.

[표 4] 2003~2007년 중국의 중앙아시아국가의 직접투자보유현황표

(단위: 만 달러)

年份	中亚五国	哈萨克斯坦	吉尔吉斯	塔吉克	乌兹别克	土库曼
2003	610	294	244	-	72	-
2004	1371	231	533	499	108	-
2005	10953	9493	1374	77	9	-
2006	8165	4600	2764	698	107	-4
2007	37725	27992	1499	6793	1315	126
合计	58824	42610	6414	8067	1611	122
比重	100%	72.44%	10.90%	13.71%	2.74%	0.21%

资料来源:2007 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公报, www.fdi.gov.cn, 2009-02-27。

注:2003 年-2006 年末数据为中国对中亚国家非金融类对外投资流量数据。

중국기업에게 승인된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변경도로 건설항목, 아일딩-투보칸 광물개발항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타지키스탄 통신시스템 현대화 및 수력개발항목 또한 금

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2월 1일까지, 중국은 타지키스탄 기업 35개 회사에게 1055만 달러를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전신, 경방직, 농업 등에 영역이다.

중국은 건국 이래, 타지키스탄에게 2007년까지 4,045억위안을 원조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대가없는 무상원조이고, 매우 작은 비율로 무이자차관을 주고 있다. 중국은 타지키스탄의 원조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한 9억달러의 우대차관을 제공하여 상하이협력기구는행연합체시스템을 활용하여 타지키스탄의 중요항목에 자본을 지원하고 있다.¹⁹

V.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경제협력 전망

중국의 서부국경의 안정 및 경제개발, 미국과의 안보적 딜레마라는 전략적 목표달성과 타지키스탄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해결이라는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장기적인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망은 밝다. 근래들어, 양국지도자들은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타-중간 경제무역협력회의에서 계속해서 중요시하는 의제가 되었다. 타지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투자촉진 및 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해, 양국정부는 일차적으로 협정을 통과시켜 투자협력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2008년 8월, 중국국가주식 후진타오가 타지키스탄을 국빈방문기간에 양국은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2008~2013년 협력요강>, <타지키스탄 정부와 중국정부는 이중소득세, 자본세와 탈세예방세를 면제하는 협정>, <타지키스탄과 중국정부의 경상협력심화의 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²⁰

이것은 타지키스탄이 타직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증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타지키스탄 수력자원개발, 타지키스탄의 광물탐사에 있어 희소광물과 귀금속 채굴에 있어 중국과 공동개발을 바라고 있으며, 방직공장과 기타 공업회사에서의 합자건설, 현재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초설비항목을 실시해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급선무의 과제로는 은행간의 협력이 있다. 만약 정부간의 협력이 진전된다면, 현재 위험도가 커 타지키스탄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중국의 민간은행이 타지키스탄에 진출하면 상업면에서 투자기금회를 설립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타직정부는 가지고 있다.²¹

현재 타지키스탄과 중국은 단순히 인접국이 아니라, 테러분자, 분리주의와 극단주의라는 지역적 안보위협 상황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관계이다. 특히 상하이협력기구에 대

¹⁹ 段秀芳, 中国对中亚直接投资现状及问题分析, 新疆财经, 2009年 第6期

²⁰ 杨洁篪谈胡锦涛主席访问亚洲三国并出席上合组织峰会, 新华网: (검색일:2010. 12. 15)

<http://news.cctv.com/china/20080830/100066.shtml>

²¹ 拉希德·阿利莫夫, <塔中关系: 历史, 现状, 发展潜力>, 俄罗斯中亚东欧研究 2010年 第2期

한 공동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의 지지 하에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타지키스탄은 현재 자연자원과 인력자원, 교통인프라 및 기타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듀산베-치아나키(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변경)에 양질의 도로건설을 들 수 있다. 이런 교통인프라의 발달은 타지키스탄으로 하여금 지정학적 및 역사적 이유로 운송 비용상승 및 수출경로의 단순화로 인한 경제교류의 어려움을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고,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타지키스탄 정부가 바라던, "옛실크로드의 영광"이라는 무역중개국가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정부로 볼 때, 타지키스탄은 빈약한 인구로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없겠지만, 타지키스탄의 안정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의 전파를 막는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타지키스탄의 교통인프라의 발달은 이란과 파키스탄, 나아가 아프카니스탄과 인도까지의 시장을 노려볼 수 있어, 중국서부경제발전에 많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불균형무역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중국위협론이 타지키스탄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해결의 노력여부에 따라 양국의 경제협력의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볼 수 있다.

VI. 결론

앞에선 먼저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과정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사회간접자본과 대외환경에 의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경제협력이 2004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주요한 이유로, 중국이 직면한 문제점들의 해결, 즉 서부국경안정과 경제개발, 미국의 중앙아시아 특히 타지키스탄을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장기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중국이 안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양국간의 이해관계의 일치로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수출입무역액은 급속도로 증가했고, 직접투자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양국간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은 서로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수입물자를 살펴봐도 단순히 야금속과 면화를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이 전부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타지키스탄은 생필품 및 인프라건설에 필요한 물자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에너지를 강탈해가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는 경제식민지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타지키스탄에서 마찬가지로 퍼져가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은 단기적

으로는 타지키스탄에서 수입할 수 있는 물자는 매우 적다. 이것은 다른 산유국과 무역교류 시 발생하는 불균형을 에너지수입을 통해 균형을 맞춰가는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현재 타지키스탄에 퍼져가고 있는 중국위협론이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와 맞물려 중국의 서부변경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다. 이런 추세는 자칫 타지키스탄의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개발원조정책과 더불어, 타지키스탄 젊은이들에게 중국에서의 무상유학제도의 대폭적인 실시와 같은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杨进, 타지키스탄의現状与发展趋势, 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9年7月版
- 保健云, [中国与中亚五国进出口贸易特点及存在的问题分析], 国际贸易问题, 2008.7
- 段秀芳, 中国对中亚直接投资现状及问题分析, 新疆财经, 2009年 第6期
- 拉希德·阿利莫夫, <塔中关系: 历史, 现状, 发展潜力>, 俄罗斯中亚东欧研究 2010年 第2期
- 张宁, 乌兹别克斯坦和塔吉克斯坦之间的水资源矛盾, : 《俄罗斯中亚东欧市场》2009年第11期
- 杨洁篪谈胡锦涛主席访问亚洲三国并出席上合组织峰会, 新华网 : (검색일:2010. 12. 15)
<http://news.cctv.com/china/20080830/100066.shtml>
-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042808.shtml>(검색일. 2010. 12. 14)
- Gabriel Brunegård(2007), The Development of Tajikistan's Trade and Industry, Umeå University, Sweden Department of Social and Economic Geography
- 이병호, 타지키스탄 내전과 경제상황, 중동연구 2009년 28권 2호
- 정세진 , 타지키스탄 국가 연구 - 역사적 기원, 민족 정체성, 국가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1(2010)
- 심현정,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 사업, 해외경제정부 국별조사실 동북아팀(2008)
- 박상남,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4호
- 박병인,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전망:정책제언, KIEP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2(2010)
- 김옥준·김관옥,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중국 국가안보전략에서의 함의, 중국연구43권